



# 추석에도 노는 게 제일 좋아! 친구들 모여라

6일간의 긴 추석 연휴를 맞아 문화기관에서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번 명절에는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볼거리, 즐길 거리 등 행사들이 풍성하다. 문화기관들이 마련한 프로그램들을 소개한다.

◇ 국립광주박물관 즐거운 한가위 한마당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이애령)은 오는 28일부터 10월 1일(일)까지(추석 당일 휴관) 시민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즐거운 한가위 한마당'을 연다.

◇ 광주역사민속박물관 나눔행사 및 체험행사  
광주역사민속박물관(관장 최경화)은 오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야외마당에서 '2023 한가위 한마당'을 펼친다.

먼저 상설 체험행사로 전통 민속놀이 한마당, 소원을 말해봐(소원카드작기) 등 16종의 민속놀이를 진행한다. 만들기 체험 풍경만들기(28일), 보석십자수(30일), 포일아트(10월 1일)를 당일 현장 접수로 진행한다. 또한 애니메이션 영화 '은워드: 단 하루의 기억' (28일), '스노우 몬스터' (1월 1일)를 상영하고, 전래인형극 '도단이와 요술 주머니' (30일)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먼저 박물관 1층 로비에에서 한복을 착용한 관람객에게 한가위 윷배할 주머니 100세트를 증정하는 나눔 행사가 진행된다. 또한 '광주는 교육이다' 관람 인증 사진을 찍고 광주읍성 만들기 선물(100세트)을 받을 수 있다.

전래극 '도단이와 요술 주머니'는 꼬마마술사 도단이가 마술사로 거듭나기 위해 떠나는 여행을 담았다. (27일 오전 9시부터 박물관 누리집에서 사전 예약)

체험행사도 마련돼 있다. 민속놀이 체험을 비롯해 문화유산 그리기, 달토끼 종이등 만들기·소원빌가·캘리그래피 등 다채로운 체험행사가 마련돼 있다.

한편 기획전시실에서는 고 허민수 기증 특별전 '애중, 아끼고 사랑한 그림이야기'가 개최 중이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추석맞이 행사는 모두 무료로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국립광주박물관 누리집 참조.

30일 오후 3시부터는 한가위 음악회가 펼쳐진다. 공연은 관람객들이 함께 손을 잡고 '다함께 강강술래'로 막을 내릴 예정이다.

◇ ACC 문화예술 종합선물세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이강현, ACC)은 인기 공연을 가족과 함께 집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종합선물세트를 내놓았다. 오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비대면 공연 상영 프로그램 '추석은

전래 인형극 '도단이와 요술주머니' 소원빌가·달토끼 종이 등 만들기 가족과 함께 흑토끼 퍼즐맞추기 뽀로로 '매직 싱어롱쇼' 등 다채

ACC와 함께'를 문화포털과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운영한다.(오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정상 운영하며, 연휴 다음날인 10월 4일엔 휴관)

어린이·청소년공연인 '울어버린 빨간 오니', '절대 무너지지 않는 집'과 아시아콘텐츠포럼 '동상기', 5월 상영공연 '수박등 사람들' 영상을 공개한다.

정해진 임무를 달성하면 풍성한 경품을 받을 수 있는 각종 행사도 마련했다.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흑토끼 퍼즐 맞추기' 행사를 진행한다. '문화창조원 로비에 설치된 무인 안내기(키오스크)에서 제한 시간 60초 이내에 뒤섞인 9개의 흑토끼 퍼즐을 완성하는 놀이다.

한가위 세시풍속과 아시아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어린이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어린이문화원 일대에서는 '2023 어린이문화원 추석 한마당-보름달 아시아'가 펼쳐진다. 어린이작가실현실에서는 아시아의 추석문화와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어린이체험관에선 연, 토끼 딱지, 소원 병풍 등을 만들어 볼 수 있다.

어린이문화원 로비에서는 아시아 여러 나라의 전통의상 그림을 포일필름을 이용해 완성해보는 '알록달록 전통의상 포일아트', 보름달 카드에 나만의 소망을 담아 소원나무에 걸어보는 '보름달 소원편지'를 체험해 볼 수 있다. ACC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 20년간 사랑받아온 뽀로로 만나다  
광주예술의전당(전당장 운영문·전당)은 뽀로로 20주년 스페셜 '매직 싱어롱쇼'를 오는 29-30일(각각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4시 30분) 이틀에 걸쳐 전당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이번 공연은 지

난 7월 서울 코엑스오디토리움을 시작으로 수원, 전주, 청주, 대전, 울산 등지에서 열리고 있는 뽀로로 전국투어 공연의 일환으로, 뽀로로파크가 주최하고 엔투게다가 주관한다.

애니메이션 캐릭터 '뽀로로' 탄생 20주년을 기념한 스페셜 무대를 만날 수 있다. 오감만족 프로그램부터 일루전 매직 마술쇼, 관객과 소통하는 노래와 댄스타임 등이 마련돼 있다. 특히 뽀로로는 유튜브 키즈콘텐츠 분야 조회수 1위를 기록했으며 뽀요tv, 울레tv, Btv등 키즈채널 중 시청률 1위를 기록해 올 만큼 아이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일반석 5만 5000원, R석 3만 5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ACC의 '절대 무너지지 않는 집'

## 광주극장서도 한가위 맛이

'절해고도'·'스크래퍼'·'어파이어'·'어느 멋진 아침'·'란' 등 상영

민족대명절 한가위를 맞아 추석 연휴 간 광주극장에서 오는 28일까지 다채로운 작품을 선보인다.

간 영화제 심사위원상을 수상한 '여덟개의 산'을 먼저 만나볼 수 있다. 파울로 코네티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영화화한 작품인데, 알프스에서 유년기를 보낸 친구들의 우정, 재회 등을 담았다. 같은 날 2023년 선댄스영화제 심사위원 대상 수상작 '이더널 메모리'도 개봉한다. 작중 저널리스트와 문화부 장관 부부는 알츠하이머를 알게 되는데, 사랑을 잃지 않으려는 부부의 모습을 셀카카메라와 휴대폰으로 방식을 통해 보여준다.

28일, 다음 달 3일 상영할 계획이다. '20세기 명화극' 퍼'를 감상할 수 있다. '절해고도'는 윤철, 지나, 영지 세 사람의 인연과 얽혀있는 사연들을 운치 있는 풍경 속에 담아낸 작품으로 영상미가 돋보인다. 또 '스크래퍼'는 조지의 집에 불청객 아빠 '제이슨'이 방문하며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게 만드는 이야기를 담았다.

아울러 75회 칸영화제 최우수 유럽영화상에 빛나는 '어느 멋진 아침'과 73회 베를린국제영화제 은곰상을 받은 '어파이어'는 현재 상영 중이다.

이외 광주극장 월간 클래식 '20세기 명화극장'의 일환으로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란'을 오는 23일, 다음 달 3일 상영할 계획이다. '20세기 명화극



영화 '란' 스틸컷. (광주극장 제공)

장'은 광주극장이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매월 1편씩 20세기 명작 영화작품을 상영하는 기획전이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극장 문의. 062-224-5858.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가을 초입 '안부-운주사로부터'

김혁정 초대전, 10월 3일까지 드영미술관

운주사는 신라말 도선국사가 풍수지리에 따라 비보사찰로 세웠다는 설이 전해온다. 이곳에는 천불천탑(千佛千塔)을 하룻밤에 세워 내실을 기했다는 설화가 전해온다. 특히 운주사와불은 두 개의 석불이 나란히 붙어 있는 모습이 이채롭다. 도선국사가 하룻밤에 천불천탑을 만들려 했으나, 동자승이 닭소리를 내는 바람에 석수장자들이 날이 샌 줄 알고 떠나버려 그대로 누워 있게 됐다. 전설이 전해온다.

가을이 점차 무르익어가는 시간, 무등산 초입에서 가을과 어울리는 전시가 열리고 있다.

오는 10월 3일까지 드영미술관(관장 김도영) 1전시실에서 열리는 김혁정 초대전 '안부-운주사로부터'전이 그것.

풍부한 감성을 바탕으로 창작활동을 펼쳐온 김혁정 작가는 자신만의 정제된 조형적 표현을 통해 세상과 소통해왔다. 작가는 침대에 운주사를 처음 만난 이후, 틈나는 대로 운주사를 찾았다. 오랜 시간 머물며 걷고 보고 그리면서, 미륵의 본모습을 찾는 데 고심했다. 천불천탑에 담긴 그 크고 넓은 마음을 두고두고 읽어내고자 했다.

아마도 작가의 내면에는 오랫동안 운주사 천불천탑과 와불이 전해주는 이야기와 미륵신앙에 대한 사유들이 작품의 모티브로 드리워져 있었던 모양이다. 가을날 보게 되는 운주사의 풍광과 천불천탑, 와불이 주는 이미지는 다채로운 감성과 아울러 옛 사람들의 삶과 지향점 등을 떠올리게 한다.

김도영 드영미술관 관장은 "이번 전시에서는 김혁정 작가의 외유(外遊)와 형형색색의 결다른 행보가 만들어 낸 귀한 운주사 작품을 마주하게 될



'안부-운주사로부터'

것'이라며 "가을날 무등산 자락에서 열리는 전시회에서 예술적 감성을 느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김혁정 작가는 전남대 미술교육과와 미술교육 석사과정을 졸업했다. 파리 제1대학교 대학원 조형예술학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여수 한영대학교 수를 역임했다. 지금까지 서울 아트페어를 비롯해 다수의 그룹전, 개인전을 개최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기억책방 책담회

6일, 문동만 시인 '치유와 생동의 ...'  
10일, 김보경 작가 '낭독은 입문학이다'

가을은 책을 가까이 하기에 좋은 계절이다. 곳곳에서 책을 매개로 한 행사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기억책방(동구 백서로 179, 2층)은 오는 10월 두 차례 책담회를 연다.

다음 달 6일(오후 6시)은 문동만 시인을 초청해 '치유와 생동의 서정시 읽기'를, 같은 달 10일(오후 6시)은 김보경 작가가 참석해 '낭독은 입문학이다'라는 주제로 책담회를 진행한다.

문동만 시인 책담회에서는 시인의 육성 시 낭독과 시 세계를 엿보는 시간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문

시인은 1994년 계간 '삶 사회 그리고 문학'으로 작품활동을 시작했으며 시집으로 '그네', '구르는 잠', '살은 일 났 생각하고'와 산문집 '가만히 두는 아름다움'을 펴냈다.

인문학카페 '문학다방 봄봄'을 운영한 김보경 작가는 EBS, YTN 등에서 패널로 활동했으며 현재 KBS 1라디오의 '라디오 전국일주'의 '우리땅 예술 기행'에 출연하고 있다. 독서 비평서 '낭독은 입문학이다'를 발간했다.

송기영 기억책방 대표는 "가을이 무르익어 가는



문동만 시인



김보경 작가

10월에 열리는 책담회는 문동만 시인과 김보경 작가를 초청해 낭독과 아울러 두 문인의 문학세계를 엿볼 수 있는 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가비 무료 선착순 10명. 문의 010-3038-4435.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1982 - 2022

국제보청기 40주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국제보청기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앞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2) 227-9940**

**062) 227-9970**

**02) 765-9940**

**061) 752-9940**